

## 왕(王)보다 주(主)

다니엘 1:1-7

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본문에는 유다왕도, 바벨론 왕도 등장합니다.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계십니다. 오늘은 세상의 왕과 주님 중에 누가 더 위대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주님만이 견고하시다

본문에서 유다 왕 여호와김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포위한 장면을 봅니다. (단 1:1) 세상 왕들은 이렇게 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러한 세상 왕들에게 닳을 내리면 흔들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왕은 낡은 옷 같은 존재라서 언젠가 헤어지고 또 바뀝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의 계절이 되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나 그 줄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쉽게 끊어지는지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견고한 분이 있습니다.(시 102:25-28) 주님만이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견고함은 영원히 견고하신 주님께 내 영혼의 닳을 내릴 때 가능합니다. 계속 요동치는 인생을 사시려면 세상 왕을 의지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 2. 주님만이 행복이시다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 얼마를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시날땅에 갖다 두었습니다.(단 1:2)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만 그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때에는 주의 백성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끝까지 이기지 못합니다. 다니엘서는 계속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이 잠시 잘되고 이긴 것이 진짜 잘 되고 진짜 이긴 것 아닙니다. 결론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주님에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만이 유일한 복이십니다.(시16:1-4) 주님 그 분 자체가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의 보물창고를 쫓겠습니까, 나의 복이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가시렵니까?

### 3.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본문 3절부터 보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왕족출신 귀족출신 가운데서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훈련시키고 키워 바벨론 왕국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소년들을 뽑아 왕궁의 환관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단 1:3-7) 세상적인 이름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아주 민감한 사춘기 소년들이었습니다. 판단력과 결단력이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포로 신세에서 출세가 보장된 왕궁에 들어왔으니 쉽게 모든 것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어린 소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겉의 이름은 바뀌었으나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빼앗기고 바벨론 왕국의 세뇌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이런 신앙의 지조가 있는 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직한 것에 타협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은 언제나 주님뿐입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견고하십시오. 주님만이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왕보다 주,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 ○ 나눔의 시간 ○

1.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2. 모든 일의 결론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3.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4.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 내 삶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